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교육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재환^{1*}, 최명길¹, 김용태²
¹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경학부
²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Performa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cused on Short Program of Local Government.

Jae-Whan Park^{1*}, Myeong-Gil Choi¹ and Yong-Tae Kim²

¹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용 축소와 비자발적인 퇴직이 늘어가는 반면에 창업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정보와 창업 지식이 결여된 준비 없는 창업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창업 교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수강자의 학습참여동기, 창업의지, 교육 만족도, 자기 유능감이 창업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교육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단기간 수행되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교육프로그램 구성, 수강자 선발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se day, the recession of economics and cutting-off jobs makes increases of start-up business. The unprepared start-up business which lacks sufficient information and knowledge should fall. For successful start-up business, the effective education program should be necessary. This study reviews factors such as learning motiv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ducation satisfaction, self-efficacy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short-term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establishes hypothesis and verifies them. To verify the hypothesis,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short-term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 through utilizing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 suggest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utilized as followings; First the results of study could be used to establish policy which improves the performance of short-term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 Second, the identified factors help educator to established the curriculum of the short-term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 Third, the identified factors could be established as criteria to recruit the applicants who wants to received short-term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Learning Motiv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ducation Satisfaction, Self-efficacy, Educational Performance

1. 서론

최근 들어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은 신규 고용 창출의 방안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 및 다양한 창업교육과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교신저자 : 박재환(jaypark@cau.ac.kr)

접수일 10년 02월 10일

수정일 10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10년 03월 18일

그러나, 창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정보와 지식을 갖추지 않은 준비 없는 창업은 곧 실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창업 실행에 앞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들어 현실적인 창업의 필요성,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의 당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언론매체, 각종 민간단체 등도 집중적인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간의 집중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짧은 기간 내 많은 정보와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해야 하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교육성과는 장기적인 정규 창업교육프로그램과 이질적일 수 있다. 이러한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교육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므로,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설·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한다.

2. 선행 연구

2.1 교육 성과(Educational Performance)

교육프로그램에서 성과란 교육을 통해 학습한 결과를 실제 업무수행 활동에 적용시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뜻한다. 창업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성과란 학습에 참여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능, 적성, 태도, 가치관 등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교육성과는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실제 창업에 적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교육프로그램 자체의 내부적 특징 이외에도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요인들, 즉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태도, 가치, 기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이후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Noe[11]는 교육성과에 학습동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학습자의 경력, 태도, 자기유능감과 참여동기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참가자의 교육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Baldwin & Holton III[4]도 교육 참가자의 성취 욕구, 자기유능감, 참여동기, 기대 및 만족도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교육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교육의 성과는 창업에 필요한 지식 및 사용기술(skill)의 획득 뿐만 아니라, 창업의지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창업의지와 성공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가르쳐 질 수 있다[1].

2.2 학습참여 동기(Learning Motivation)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참여 동기란 창업 교육에 참가하는 이유를 의미하며, 교육 후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Luthie and Franke 등[10]은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는 초기 창업에 필요한 촉매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창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신생 기업 창업간 정(正)의 관계가 있으며, 창업교육훈련에 참가한 학생은 자신의 기업을 창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미국 최고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Babson College는 창업교육의 목적은 학습자 중심의 창업교육이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창업교육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적절한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경험과 필요성을 체득하게 하여, 창업자의 강점과 진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Houle[9]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개인에 따른 상이한 학습 목적과 학습 동기가 있다. 학습 동기에 따라 목표 지향 학습자, 활동 지향 학습자, 학습 지향 학습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표 지향 학습자는 명확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며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목표를 수립한다. 목표 지향 학습자는 체계적인 강의와 코스에 관심을 갖고 기술자격증이나 졸업장 획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활동 지향 학습자들은 교육기관을 인적교류를 위한 개방 장소 또는 안정된 사회적 사교장소로 인식한다.

2.3 창업 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은 일종의 계획된 행동으로 창업 의지는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는 경험적인 증거가 있다[8]. 더욱이, 창업 이전에 창업가의 창업 의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이미 창업한 기업가의 의지를 파악하는 연구와 상이하다. 예비 창업가의 의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기존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제시하지 못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어 사후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준다. 창업의지 및

창업에 필요한 창업가의 역량은 학습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 교육은 창업 의지를 제고할 수 있다[1]. 조병주[3]는 창업 교육은 창업자를 후천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개인의 창업 동기를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창업 의지, 즉 자기 유능감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2.4 교육 만족도 (Educational Satisfaction)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 만족이란 학습자의 학습 과정, 강사, 교육 환경 및 교육 방법 등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견해이다. Astin은 교육 만족도를 ‘학생의 교육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교사, 교육 과정과 수업,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 지원 서비스, 시설, 교육 여건, 교과목 이수 기회, 교육 자원과 사회적 평판 등의 경험 부분에 대한 학습자 인식 등을 조사하는 방법, 둘째, 학생이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학생 지원 서비스등과 같은 분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다[1].

2.5 자기유능감(Self-efficacy)

Bandura[5]는 자기유능감을 일반적으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화·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정의한다. Chen[7]등은 창업가의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을 창업가의 역할 또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이 가지는 신념의 강도로 정의한다. Boyd & Vozikis[6]는 창업 의지를 행동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지적한다.

실제로 창업자가 지각한 자기 유능감은 창업가로서의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Bandura[5]는 창업가는 창업을 결정할 때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분야보다 현재 보유 능력에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유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목표를 선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시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자기 유능감은 창업과 도전적인 목표의 설정 및 달성 노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2].

3. 연구 모형

3.1 가설 수립

본 연구는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교육성표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선행 연구를 기초로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1) 학습 참여동기 (2) 창업의지 (3) 교육 만족도 (4) 자기유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첫 번째 독립 변수는 학습 참여동기이다.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는 개인에 따라 다양하므로, 효과적인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의 학습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동기의 분석은 창업교육의 만족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 동기를 목표 지향 학습자, 활동 지향 학습자, 학습 지향 학습자 등으로 가정하고 있다. 목표 지향 학습자는 창업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활동 지향 학습자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단기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 학습 지향 학습자는 창업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을 위해 단기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참여 동기가 교육 만족도, 자기 유능감 및 창업교육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가설 1 :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학습동기는 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학습동기는 자기 유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창업의지이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습 참여자의 창업 의지가 교육 만족도 및 자기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3 :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창업의지는 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창업의지는 자기 유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 독립변수는 교육 만족도이다. 창업교육에 있어서도 창업 교육의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 교육의 효과인 자기유능감의 증가와 높은 교육성과를 가져온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교육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학습자의 자기 유능감과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5 :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는 자기 유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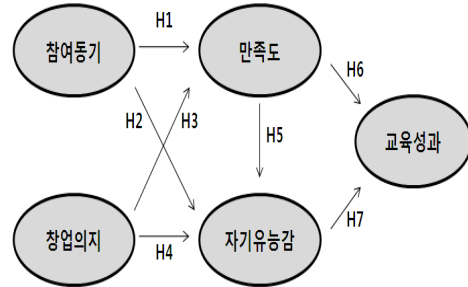
는 창업교육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번째 독립 변수는 자기 유능감이다. 효과적인 창업 교육은 창업가의 자기 유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창업 교육에 관한 연구와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창업을 지망하는 많은 사람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자기 유능감이 창업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7 :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자기유능감은 창업교육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서술한 가설 설정에 근거하여 주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서술하는 연구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그림 1] 창업교육 성과 연구모형

[표 1] 설문항목

| 변수 | 설문 항목 | 분류 |
|--------------------------------------|----------------------------------|-------|
| 학습참여 동기 (Learning Motivation) | (1)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고 싶다. | LM 1 |
| | (2) 평소 창업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 LM 2 |
| |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받고 싶다. | LM 3 |
| | (4) 창업관련 분야의 인적 교류 확장을 하고 싶다. | LM 4 |
| | (5) 배움 그 자체가 즐겁고 보람되기 때문이다. | LM 5 |
| | (6) 창업관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싶다. | LM 6 |
| | (7) 창업관련 전문가가 되어 보고 싶다. | LM 7 |
| 창업의지 (Entrepreneurial Intention) | (1) 평소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남들보다 많다. | EI 1 |
| | (2) 나는 언젠가는 창업을 꼭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EI 2 |
| | (3) 나는 꼭 성공한 창업가가 되고 싶다. | EI 3 |
| | (4) 창업관련 지식과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싶다. | EI 4 |
| 교육 만족도 (Educational Satisfaction) | (1) 교육내용이 나의 목표 및 의도와 가깝다. | ES 1 |
| | (2) 교육내용이 창업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 ES 2 |
| | (3)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 실시되어 만족스럽다. | ES 3 |
| | (4) 강사진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만족스럽다. | ES 4 |
| | (5) 창업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 ES 5 |
| 자기 유능감 (Self-efficacy) | (1) 나는 창업에 있어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 | Se 1 |
| | (2)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 | Se 2 |
| | (3) 나는 창업관련 능력과 지식이 남보다 뛰어나다. | Se 3 |
| | (4) 나는 교육을 받고 나서 창업 능력이 증가했다. | Se 4 |
| | (5)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자신감이 증가했다. | Se 5 |
| 교육 성과 (Educational Performance) | (1) 창업환경 변화와 창업가정신에 대하여 이해한다. | EP 1 |
| | (2) 창업과정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EP 2 |
| | (3) 창업분야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기술이 증가했다. | EP 3 |
| | (4) 성공적 창업가가 되기 위한 창업지식이 증가했다. | EP 4 |
| | (5) 창업조직 및 인적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 | EP 5 |
| | (6) 창업관련 재무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 | EP 6 |
| | (7) 창업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 | EP 7 |
| | (8) 벤처창업경영과 위기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 | EP 8 |
| | (9) 소기업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증가했다. | EP 9 |
| | (10) 창업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 | EP 10 |

3.2 설문 항목

본 연구는 종속변수 측정을 위하여 아래 [표 1] 같은 설문 항목을 구성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실무에서 사용되는 문항을 토대로 변수를 구성하였고,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한다. 각 측정 항목은 창업 교육 프로그램 학습 참여 동기, 창업 의지, 만족도, 자기 유능감, 교육 성과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Houle[9]의 교육프로그램 학습 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총 7개의 측정 문항을 제시한다. 단기간에 시행되는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수강자를 명시적 목표 지향적 학습자, 활동 지향적 학습자, 학습 지향적 학습자로 구분하고, 리커트 5단계 척도를 사용한다.

수강자의 창업의지를 측정하는 지표는 Timmons[12]의 창업의지 영향 요인을 활용하여 창업에 대한 호기심, 구체적인 창업계획 보유 여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설립 의지, 창업 지식 및 기술에 대한 학습 의지 등 4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수강자의 만족도는 Astin의 교육 만족도 측정에 관한 요인을 활용하여 교육 목표, 학습자 만족도, 교육 내용의 적절성, 효과적인 교육방법, 강사의 역량, 기타 창업정보 지원 서비스 등 5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2].

수강자의 자기 유능감은 Makrman, Balkin, & Baron[11]의 연구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자기 유능감 (general self-efficacy) 개념을 기초로 창업에 필요한 자질, 능력의 구비, 창업 skill의 향상 인지, 창업성공에 대한 자신감 증가 등 5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확한 평가 측정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해야한다. 본 연구는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성과 측정을 위해 학습 효과 측정 항목은 창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 창업 과정(process) 숙지, 창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지식증가,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향상, 소기업의 재무 및 마케팅 이해도 향상, 위기 관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식 습득 등 총 10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4. 실증 분석

4.1 자료 수집 및 표본 분석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인 Hi- Seoul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자 182명과 인천광역시 주관하는 크레비즈창업스쿨 수강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실증 분석은 18명의 불완전한 설문 응답자를 제외한 32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231명(70.2%), 여자 98명(29.8%)으로 남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20대가 24명(7.3%), 30대가 84명(25.5%), 40대가 117명(35.6%), 50대가 91명(27.7%), 60대가 13명(4.0%) 등이다. 현재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186명(56.5%), 창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143명(43.5%)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타 교육기관에서 창업 교육을 수강한 경험자는 64명(19.5%), 미수강자는 265명(80.5%)으로 창업 교육을 처음으로 받는 수강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근무경험이 10년 이상이 141명(42.8%), 6년~10년 미만이 86명(26.1%), 5년 미만이 84명(25.5%), 직장 근무 경험이 없는 수강자가 18명(5.5%) 등이다.

4.2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5.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측정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의 확인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 표본의 특성

| 변 인 | 범 주 | 빈도(명) | 비율(%) |
|-----------|------------|-------|-------|
| 성 별 | 남 | 231 | 70.2 |
| | 여 | 98 | 29.8 |
| 연 령 | 20대 | 24 | 7.3 |
| | 30대 | 84 | 25.5 |
| | 40대 | 117 | 35.6 |
| | 50대 | 91 | 27.7 |
| | 60대 | 13 | 4.0 |
| | 없음 | 18 | 5.5 |
| 직장 근무경험 | 5년 미만 | 84 | 25.5 |
| | 6년 ~10년 미만 | 86 | 26.1 |
| | 10년 이상 | 141 | 42.8 |
| 창업교육 수강여부 | 있다 | 64 | 19.5 |
| | 없다 | 265 | 80.5 |
| 창업 경험 | 창업경험 있음 | 186 | 56.5 |
| | 창업경험 없음 | 143 | 43.5 |

[표 3] 확인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 변수 | 항목 | 요인 부하량 | 표준요인 부하량 | t값 | p값 | 신뢰도계수 |
|---------------|------|--------|----------|--------|------|-------|
| 학습참여동기 (LM) | LM 1 | 1.000 | .854 | - | - | .828 |
| | LM 2 | .976 | .853 | 13.433 | .000 | |
| | LM 6 | 1.221 | .879 | 20.321 | .000 | |
| 창업의지 (EI) | EI 1 | 1.000 | .903 | - | - | .874 |
| | EI 2 | 1.314 | .958 | 16.959 | .000 | |
| | EI 3 | 1.152 | .851 | 15.820 | .000 | |
| 교육만족도 (ES) | ES 1 | 1.000 | 1.086 | - | - | .889 |
| | ES 4 | 1.730 | .804 | 10.703 | .000 | |
| | ES 5 | 1.860 | .891 | 12.052 | .000 | |
| 자기유능감 (Se) | Se 1 | 1.000 | .896 | - | - | .802 |
| | Se 2 | 1.231 | .866 | 11.987 | .000 | |
| | Se 3 | 1.187 | .805 | 13.255 | .000 | |
| 교육성과 (EP) | EP 2 | 1.000 | .836 | - | - | .939 |
| | EP 4 | 1.309 | 1.145 | 11.544 | .000 | |
| | EP 5 | .957 | .930 | 20.703 | .000 | |
| | EP 6 | .709 | .915 | 15.653 | .000 | |

[표 3]이 나타내듯이 학습 참여 동기, 창업 의지, 수강자 만족도, 수강자 자기 유능감 등의 설문 항목의 신뢰도를 측정한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0.828, 0.874, 0.889, 0.802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각각의 설문 항목의 신뢰도가 있다.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설문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한 Cronbach α 계수는 0.939이다. 따라서 교육 효과에 대한 설문 항목은 타당성이 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변수 항목 중 중복 또는 내적 일관성이 낮은 항목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는 내적 일관성을 분석한 후,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재평가하였다. 이후 모형 적합도와 수정 지수를 개선시키는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저해시키는 변수들을 삭제하였다. 결과적으로 GFI와 NFI가 모두 .90이상(GFI=.900, NFI=.915)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확인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값을 나타낸다.

4.3 실증 분석

실증분석을 위해 아래 [표 4]와 같이 측정변수 간 관련성 및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수강자의 학습 동기와 창업의지는 교육만족도 및 자기 유능감, 교육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과 가설에서 제시된 변수 사이의 관계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모형 적합도의 기본이 되는 측정치인 χ^2 통계량, 자유도(d.f), p-value, 이외에도 절대 적합도지수인 GFI(Goodness-of-fit) 및 RMR(Root Means Residual)등을 산출하고, 중분 적합도 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를 통해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전반적 적합도의 기본이 되는 측정치인 χ^2 통계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측정치이다. 하지만 χ^2 통계량이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므로 적합 지수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과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 모형의 최적화를 위해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 간결 적합도 지수인 PGFI(Parsimony Goodness-of Fit Index)값과 PNFI(Parsimony Normed Fit Index)값을 비교하여 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카이제곱통계량($\chi^2=132.317$)과 자유도(d.f=36)가 유의(p값=.000)하므로 연구모형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자료와 모델에 의해 예측한 예측결과와의 자승 잔차를 나타내는 기초부합지수(GFI=0.936)와 표준 부합 지수(NFI=0.935) 등에 대한 통계량도 모두 권장 수준인 0.9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가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델은 적합성과 간결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표 4] 측정 변수 상관관계 계수

| 구분 | LM 1 | LM 2 | LM 6 | EI 1 | EI 2 | EI 3 | ES 1 | ES 4 | ES 5 | Se 1 | Se 2 | Se 3 | EP 2 | EP 4 | EP 5 | EP 6 |
|-------|--------|--------|-------|-------|-------|-------|-------|-------|-------|-------|-------|-------|-------|-------|-------|------|
| LM 1 | 1 | | | | | | | | | | | | | | | |
| LM 2 | .539* | 1 | | | | | | | | | | | | | | |
| LM 6 | .787* | .565* | 1 | | | | | | | | | | | | | |
| EI 1 | .406* | .551* | .488* | 1 | | | | | | | | | | | | |
| EI 2 | .597* | .584* | .675* | .731* | 1 | | | | | | | | | | | |
| EI 3 | .698* | .467* | .688* | .556* | .816* | 1 | | | | | | | | | | |
| ES 1 | .481* | .412* | .625* | .392* | .564* | .502* | 1 | | | | | | | | | |
| ES 4 | .360* | .308* | .372* | .014 | .160* | .203* | .501* | 1 | | | | | | | | |
| ES 5 | .471* | .360* | .485* | .108* | .242* | .214* | .501* | .720* | 1 | | | | | | | |
| Se 1 | .416* | .224* | .297* | .373* | .413* | .418* | .426* | .102 | .054 | 1 | | | | | | |
| Se 2 | .463* | .397* | .416* | .444* | .428* | .394* | .260* | .021 | .174* | .524* | 1 | | | | | |
| Se 3 | .326* | .280* | .368* | .313* | .440* | .393* | .362* | -.033 | .081 | .568* | .633* | 1 | | | | |
| EP 2 | .329* | .210* | .282* | .262* | .337* | .277* | .317* | .219* | .265* | .377* | .354* | .486* | 1 | | | |
| EP 4 | .511* | .424* | .487* | .399* | .476* | .454* | .395* | .259* | .338* | .537* | .476* | .565* | .623* | 1 | | |
| EP 5 | .397* | .292* | .408* | .198* | .360* | .313* | .345* | .333* | .460* | .412* | .355* | .478* | .758* | .691* | 1 | |
| EP 6 | .117** | .110** | .199* | -.025 | .220* | .227* | .163* | .165* | .313* | .145* | .147* | .396* | .585* | .514* | .668* | 1 |
| 평균 | 4.41 | 4.13 | 4.36 | 4.07 | 4.41 | 4.52 | 3.91 | 4.04 | 3.94 | 3.21 | 3.50 | 3.21 | 3.37 | 3.74 | 3.67 | 3.53 |
| 표준 편차 | .735 | .922 | .869 | .908 | .869 | .830 | .728 | .746 | .788 | .815 | .901 | .830 | .919 | .889 | .801 | .7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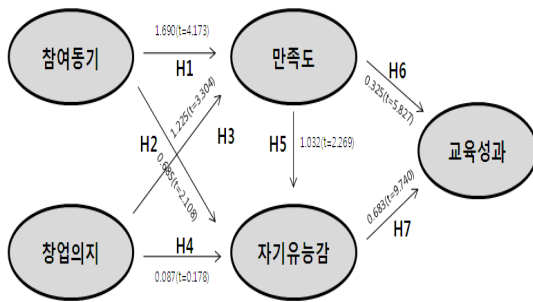
* p<0.01, ** p< 0.05수준에서 유의함.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 구분 | 절대 적합 지수 | | | | | 증분 적합지수 |
|-------|----------|-----|------|-------|-------|---------|
| | χ^2 | d.f | p | RMR | GFI | NFI |
| 연구 모형 | 132.32 | 36 | .000 | 0.027 | 0.936 | 0.935 |

4.4 가설의 검증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 모형의 구조 경로 도형과 경로 계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가설 1]은 단기창업교육프로그램 수강자의 학습 동기는 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변수간의 경로계수가 1.690(t=4.173, p<.01)으로 나타나 학습 동기는 교육 만족도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로 제시한 수강자의 학습 참여 동기와 자기 유능감의 경로계수가 0.685(t=2.108, p<.01)로 나타나 학습 참여 동기가 자기 유능감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

[가설 3]과 [가설 4]는 단기창업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의 창업 의지가 각각 교육 만족도 및 자기 유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설 3]의 두 변수간의 경로계수는 1.225(t=3.304, p<.01)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가설 4]의 경우 경로 계수는 0.087(t=0.1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가설 5]는 단기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와 자기 유능감은 경로계수 1.032(t=2.269)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6]과 [가설 7]은 단기창업교육프로그램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자기 유능감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육 만족도와 교육성과는 0.325(t=5.827, p<.01)로 자기 유능감과 교육성과는

0.683 ($t=9.740, p<0.01$)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수강자의 학습 참여 동기와 창업 의지는 교육 만족도와 자기 유능감을 매개로 교육성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모형의 가설 검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가설 검증 요약

| 가설 | 가설방향 | 경로계수 | t-값 | 검증결과 |
|----|------|-------|-------|--------------------|
| H1 | (+) | 1.690 | 4.173 | 채택 |
| H2 | (+) | 0.685 | 2.108 | 채택 |
| H3 | (+) | 1.225 | 3.304 | 채택 |
| H4 | (+) | 0.087 | 0.178 | 기각 ($p=.205$) |
| H5 | (+) | 1.032 | 2.269 | 채택 |
| H6 | (+) | 0.325 | 5.827 | 채택 |
| H7 | (+) | 0.683 | 9.740 | 채택 |

【표 7】은 본 연구의 변수간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개인의 만족도는 학습 참여 동기로부터 1.690, 창업 의지로부터 1.225 정도의 효과를 받고 있고,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 유능감은 만족도로부터 0.322, 학습 참여 동기로부터 0.729 정도의 효과를 받고 있어 영향력은 유의하다. 다만 창업의지로부터 0.481 정도의 효과를 받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정리하면, 교육 성과는 만족도로부터 0.316, 자기 유능감 으로부터 0.737, 학습 참여 동기로부터 0.637, 창업 의지로부터 0.031 정도의 간접적인 효과를 받고 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7】 연구모형에 대한 효과 추정(표준화 추정치)

| 내생변수 | 외생변수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만족도 | 학습 참여 동기 | 1.690 | - | 1.690 |
| | 창업의지 | 1.225 | - | 1.225 |
| 자기 유능감 | 만족도 | 0.322 | - | 0.322 |
| | 창업의지 | 0.087 | 0.394 | 0.481 |
| 교육 성과 | 학습 참여 동기 | 0.685 | 0.044 | 0.729 |
| | 만족도 | 0.316 | - | 0.316 |
| | 자기유능감 | 0.737 | - | 0.737 |
| | 학습 참여 동기 | - | 0.637 | 0.637 |
| | 창업의지 | - | 0.031 | 0.031 |

5.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교육기관들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 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기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창업프로그램 수강자가 단기간에 높은 교육성구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교육성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강자의 학습 동기, 창업 의지, 교육 만족도 및 자기 유능감 등을 선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요인은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교육성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성과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수강자의 학습 동기는 교육 만족도와 자기 유능감 향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 둘째, 단기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창업 의지는 교육 만족도 증가에 정(+)의 영향을 준다. 그러나, 창업 의지는 자기 유능감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셋째,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는 자기 유능감 향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 넷째,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만족도와 자기 유능감은 교육성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

이상의 실증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주체는 사전에 교육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발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학습동기 및 창업의지가 충분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교육에 참여시킬 때 교육성구가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강사들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교육프로그램의 집중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통해 창업관련 지식과 기술 등에 관한 자기 유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참가자는 단기교육과 정규 교육프로그램 형태 중에서 어떠한 형태의 창업교육이 본인에게 적합한 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의 잠재적인 창업자(potential entrepreneur)보다는 창업을 곧바로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nascent entrepreneur)에게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각종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양적으

로 증가하는 반면에,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에 피드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확장과 질적인 발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서울시와 인천시가 주관하는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자체 교육의 특성은 교육과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컨설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교육은 수강자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수강자의 학습 동기, 창업 의지, 교육 만족도, 자기 유능감 등이 타 교육기관 수강자보다 본질적으로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화를 위해서는 추후 지자체 이외의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박재환-김용태, "창업교육 만족도 및 참여동기가 창업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제22권 제2호, pp. 959-977. 2008.

[2] 백윤정, "여성창업자의 자기유능감과 사회적 기술, 인적자본이 관리역량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사관리연구 제27권 제3호, pp. 191-219. 2003.

[3] 조병주, " 새로운 창업교육 방향",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49-74. 1996.

[4] Baldwin, T.T & Holton III, "Improving Learning Transfer in Organization", *Jossey Bass*. 2003.

[5]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 Company*. 1997.

[6] Boyd, N. G., and Vozikis, G. S.,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2), pp 63-90. 1994.

[7] Chen, Greene & Crick, "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1). pp. 295-316. 1998.

[8] Chrisman, J.J., "Estimating the Exte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Become Reality A Note", *United States Association for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Annual National Conference, November 14, 1997.

[9] Houle, C. O., "The Importance of Adult Education, In Study-Discussion Group Techniques for Parent Education Leader", *Chicago : National Congress of Parent and Teacher*, pp. 13-16. 1961.

[10] Luthje. C and Franke, N., "Fostering Entrepreneurship Through University Education and Train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2.

[11] Markman, G.D, Balkin, D.B., & Baron, R.A., "Inventors and New Venture Formation: The Effects of General Self-efficacy and Regretful Thinking", *Proceedings In the 2002 Victoria Conference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Entrepreneurial Cognition*. pp 135-151. 2002.

[12] Noe, R. A., "Employee Training and Development with Power Web Card 3/e", *McGraw-Hill Irwin*. 2004.

[13] Timmons, J. A., "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6(1), pp. 5-20. 1994.

박 재 환(Jae-Whan Park)

[정회원]



- 1984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1986년 ~ 1998년 : 한영,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1998년 ~ 2000년 : SK-enron, Finance & P&D team, Manager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5년 3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 2007년 3월 :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부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산업 · 창업경영대학원 원장보, 사업단장
- 2010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글로벌식식학부장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Corporate Entrepreneurship, Social Entrepreneurship, 회계감사 및 세법

김 용 태(Yong-Tae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경상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문학사)
- 2009년 2월 : 중앙대학교 산업 ·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대학원 창업학과 (창업학 박사과정)

- 1999년 3월 ~ 2007년 12월 : 엔씨커뮤니케이션(주) 부사장
- 2005년 3월 ~ 현재 : 코이 인터내셔널 대표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Corporate Entrepreneurship, Social Entrepreneurship

최 명 길(Myeong-Gil Choi)

[정회원]



- 2004년 9월 :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 1995년 9월 ~ 2000년 1월 : 국방 과학연구소 연구원
- 2000년 2월 ~ 2005년 8월 :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2005년 9월 ~ 2008년 2월 : 인제 대학교 조교수
- 2008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창업정책, 기술창업, 보안성평가, 정보보호정책 및 관리